

서 평 지

서평 제목	반드시 별레가 되는 법	참가번호	2024-22
도 서 명	변신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p>카프카의 변신은 어느날 아침 갑자기 침대 위에서 갑충의 모습으로 변한 주인공 그레고르의 독백으로 시작한다. 그의 독백에서는 자신의 몸이 별레의 형태로 변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좌절의 반응을 보이기보다 회사로부터 주어진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즉, 자신의 “기능”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 큰 듯한 기색이 느껴진다.</p> <p>가족들의 반응 역시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있다. 방문 너머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는 그레고르의 말에 여동생은 울고, 어머니는 안절부절못하며, 아버지는 화를 내며 눈물을 흘린다. 이들도 모두 그레고르의 ‘존재’보다는 ‘기능’을 걱정하는 듯하다.</p> <p>카프카의 「변신」은 단순히 신체적 변형을 다룬 초현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재산, 권력, 지위 등의 외적 요소를 축적할수록 안전하다 여기는 자아 정의 방식인 ‘소유 모드’에 속하는 더 많은 물질적 가치를 갈망해 타인과의 관계가 도구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 혹은 사회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낸 작품으로 읽힐 수 있다.</p> <p>그레고르가 별레로 변한 이후, 그는 더 이상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아니게 된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해왔지만, 신체적 변화로 인해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은 그를 점점 짐으로 여기기 시작한다.</p> <p>우리는 물건에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전자제품이 잘 안 돌아가고 잘 안 켜지면 버린다. 물건에 대한 사랑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소유 모드’의 사람은 인간관계에도 ‘조건’을 붙인다. 그들은 돈을 벌여주거나, 도움이 되면 사랑하고 애정 해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대를 망가졌다고 여긴다.</p> <p>이러한 ‘소유 모드’의 인간들의 면모를 카프카는 「변신」에서 ‘그레고르의 가족’을 통해 매우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없는 사람’이 집안에 존재할 때 보이는 양상을 표현해냈다.</p> <p>“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생각에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경멸과 역겨움을 참으며 밥을 주고, 방을 청소하며 ‘가족의 도리’를 다하려 한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 그레고르네 가족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드러낸다.</p>			

서평 제목	반드시 벌레가 되는 법	참가번호	2024-22
-------	--------------	------	---------

혼자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역할을 도맡아 하던 여동생은 어머니가 한 번 그 영역을 침범하자, 격하게 어머니를 비난하고 오열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핑계로 그레고르를 돕는 행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레고르의 집 투숙객들이 그레고르를 발견하고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하며 떠나고, 남은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쫓아내고 닦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기자마자 가족들은 억눌렀던 마음을 쏟아내며 그레고르를 비난한다.

그 후에는 그레고르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지 혹은 보살필지 보다는 어떻게 먹고살지를 더 고민한다. 종막에 다다라서는 그레고르의 시체를 보고도 잠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곧바로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에서 가족의 도리를 다했다는 해방감과 후련함이 더 커 보인다.

사실 가족들이 그레고르에게 느끼는 감정은 “소중한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보다는 “돈을 벌 어다 주는 사람이 식충이가 됐다.,” “소중한 물건이 기능을 잃었다.” 가 더 가까운 의미일 것이다.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없는 이’들이 사회에서 종종 겪는 낙인과 무시, 그리고 가족 내에서조차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을 그레고르의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것은 단지 그의 외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식된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인간을 밥벌레라고 부르는 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말이다. 즉, 그레고르의 변신은 장애, 노화,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없게 된 이’들을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를 쟁취하려 피땀 흘리며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이 과열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 주어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는 ‘존재 모드’보단 소유한 물질의 크기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고, 점점 더 ‘소유 모드’의 사람들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고 이타심을 느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기능의 대상’로 보는 것만이 남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레고리와 같은 처지에 놓일 걱정을 해야만 한다. 미취직, 사기, 투자 실패, 권고퇴직, 인재, 자연재해, 적어도 우리가 늙는다는 진리가 바뀌지 않는 한 나이가 들고 병들어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할 때를 우리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

나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안도와 해방감을 주는 세상이 올 것이다. 무능력을 무가치라고 판단하는 게 점점 더 당연해지는 지금 세상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메멘토 모리를 끝까지 망각해버린 우리는 그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벌레가 되었구나.